

BOX 3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우리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 등 내수도 당초 전망경로에는 못 미치지만 회복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2.8%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의 경우 금년 상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점차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¹⁰²된다(<그림 1>). 아래에서는 그간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었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회복속도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그간 민간소비 회복 지연의 주요 요인

그간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는 ①높은 물가수준, ②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③소득개선 지연과 ④여타 구조적 및 특이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높은 물가수준 Price Level

팬데믹 이후 누적된 물가상승이 민간소비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필수재 비중이 큰 생활물가¹⁰³의 누적상승률^{21년 이후}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¹⁰⁴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고령층·저소득가구} 등(<그림 2>)이 직면하는 실효물가가 여타 계층보다 높아 이들의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형태별로 보면, 최근^{2020년 이후} 물가상승폭^{민간소비 디플레이터 기준}이 가장 컸고 필수재 비중이 높은 비내구재^{식료품} 등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그림 3>).

민간소비는 점차 회복속도가 빨라질 전망

저소득가구의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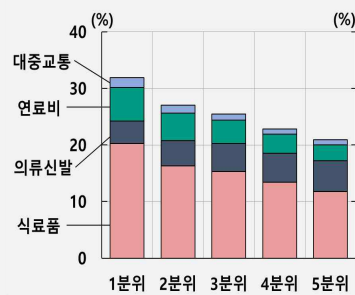
누적 물가상승률이 높은 비내구재 소비 회복이 지연

[그림 1] 민간소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소득분위별 가계소비 비중¹⁾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3] 비내구재 소비¹⁾와 물가



주: 1) 2024.2/4분기는 조사국 추정
2) 비내구재 소비의 장기추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02) 민간소비 증가율: 23.하 0.5 → 24.상 1.0 → 하e 1.8 → 25년 2.2^e (전년동기대비, %)

103) 전체 소비자물가 바스켓에서 생활물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다.

104) 2024년 7월 현재 전체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는 2020년말 대비 각각 13.8%, 16.3% 상승하였다.

②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등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금리상승 손해층을 중심으로 소비여력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그림 4>).¹⁰⁵⁾ 금리상승 손해층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순자산 가치의 손해를 보는 가계로, 주로 30~40대, 소득 중상층, 소비수준 상위층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감소가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증가를 상회할 경우 금리 상승의 소비감소 영향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미시 데이터를 보면, 소득 중상층에서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지속

부채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 소비증가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그림 4] 가계부채¹⁾ 및 금리²⁾



주: 1) 가계신용 기준
2) 예금은행 대출금리(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5] 부채수준 카드사용액¹⁾²⁾



주: 1) 소득 6천만원 이상인 카드사용자 기준
2) 부채수준별 23.4월~24.6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자료: 신한카드, 한국은행

105) 가계간 이질적인 금리익스포저 경로를 고려할 경우, 금리상승의 소비감소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고부채 보유자를 중심으로 기간간 대체만 고려했을 때보다 약 20%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2024.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핵심이슈)

소비형태별로 보면,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가 2022년 4/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6>). 이에 더해 팬데믹 초기 저금리 국면^{2020~21년}에서 내구재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아직 교체주기^{3~4년 이상}가 도래하지 않은 점도 내구재 부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1>).

내구재 소비는 팬데믹 초기 저금리 국면에서 급증 후 감소

주요 내구재의 교체주기가 도래하지 않음

[그림 6] 내구재 소비¹⁾와 금리



주: 1) 24.2/4분기는 조사국 추정치
2) 내구재 할부금리와 연동
3) 내구재 소비의 장기추세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표 1] 주요 내구재 교체주기

품 목	교체주기
① TV	4~5년
② 스마트폰	43개월
③ PC	3~4년
④ 승용차	5~7년
⑤ 가전제품	5~9년

자료: 조달청, OMDIA Counterpoint, 각 제조사, 언론보도 등 종합

③ 소득개선 지연

기업실적 이연 반영, 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이 가계의 소득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다. 작년에 부진했던 가계 실질노동소득이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초 대기업 중심으로 특별급여¹⁰⁶⁾가 줄어들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했던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7>). 또한 자영업자¹⁰⁷⁾가 많은 업종^{숙박·음식업, 도소매업}이 여타 업종보다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그림 8>) 자영업자의 수익성도 악화^{대형플랫폼 점유 확대} 등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소득개선이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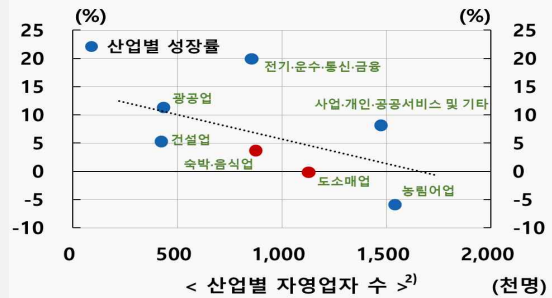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가계 실질노동소득 부진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의 낮은 성장세

[그림 7] 가계 실질노동소득¹⁾



주: 1) '취업자수×1인당평균임금/소비자물가'로 추정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8] 팬데믹 이후 산업별 성장률¹⁾



주: 1) 19.4/4분기 대비 24.1/4분기 GDP 증가율
2)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수(23.8월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06) 작년 대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이 금년초 특별급여 감소로 나타났다.(2024.1/4분기중 상용직 특별급여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

107) 자영업자는 전체 고용의 약 20%를 차지하며, 자영업자에 고용된 임금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고용의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④ 소비성향의 구조적 하락 고령화·저출산 등 및 특이요인 승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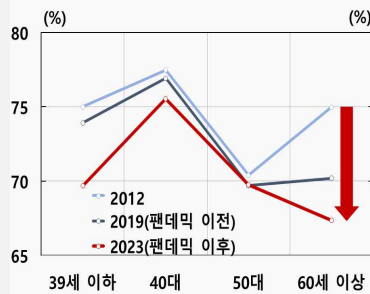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노후대비 부족으로 크게 하락¹⁰⁸⁾하고 동 연령대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점은 경제 전반의 소비성향을 낮추는 요인이다(<그림 9>). 또한, 최근 들어 교육 등 유소년^{15세 미만}과 밀접한 부문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0>). 한편, 작년 하반기 이후 내구재 감소에 상당부분 기여한 승용차 재화소비의 10% 판매부진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2023년 7월},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1>).

고령층 중심으로 소비성향 하락

저출산 영향으로 교육 등 소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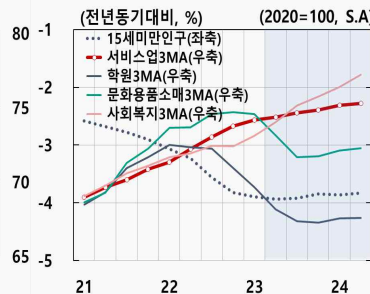
승용차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기차 캐즘 등으로 부진

[그림 9]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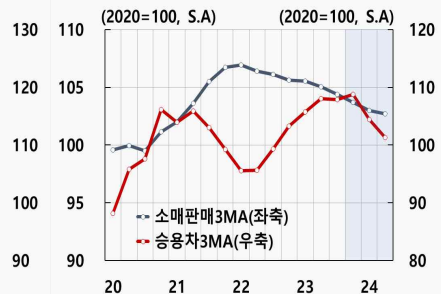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0] 유소년 인구감소의 영향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그림 11] 승용차 내수판매



자료: 통계청

향후 전망

금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어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금년 1/4분기^{1.3%} 크게 낮아졌다가 4~5월^{3.8%}에 높아지면서 회복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는 정액급여 상승률이 장기평균 수준^{3.5%}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특별급여도 회복되면서 명목임금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2>).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됨에 따라 1인당 실질임금 1인당 명목임금/소비자물가 증가율은 금년 2/4분기 이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108)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2024.7월, BOK 이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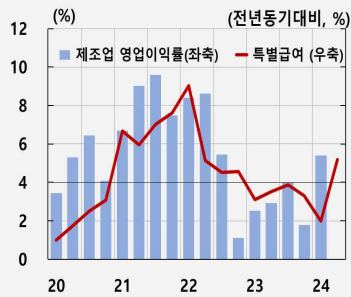
또한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IT기기 등 내구재 교체시기가 점진적으로 도래하는 점은 내구재 소비 부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그림 13>).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된 국외소비(해외여행도 예년의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확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4>). 다만,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 자영업자 업황 부진은 소비 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우리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보다 균형있는 성장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기업실적 개선은 상용직 특별급여에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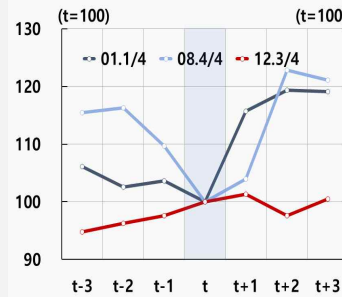
과거 금리인하 후 내구재소비 회복 국외소비의 추가적인 증가 여력

[그림 12] 제조업 영업이익률과 상용직 특별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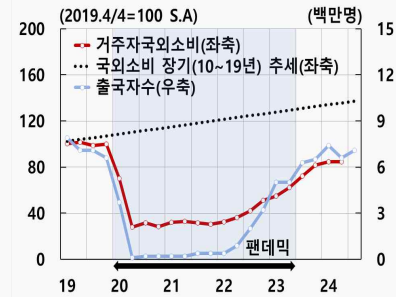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3] 과거 금리인하¹⁾ 전후 내구재소비



주: 1) 금리인하 시기: 2001.2월, 2008.10월, 2012.7월
자료: 한국은행

[그림 14] 국외소비 추이



주: 1) 2024.2/4분기 거주자국외소비, 3/4분기 출국자수는 조사국 추정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